**마0929 Ⅱ Note**

**◆이정표 : 성령의 능력은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Ⅱ**.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이 언제 나타나는지, 4복음서를 제가 훓어보았습니다.

총 38가지 말씀 중에서

1. 믿음과 관련된 것이 29가지이고, 이는 다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믿음을 보시고가 11가지,

2)믿음대로가 10가지,

3)불신앙 때문에 역사하지 않음이 5가지,

4)믿음으로 청종해서가 3가지입니다

2. 긍휼히 여기심으로가 6가지이며

3.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2가지며

4. 기타가 1가지입니다 총 38가지 말씀 중에서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역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도화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곧, 머리 속에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실을 습득하고 인정하는 정도의 정보나 지식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

우리의 머리 속에 있는 지식을 우리의 마음 속으로, 우리의 영(靈) 속으로 가져와서, 그 지식이 신념과 확고부동한 확신으로 변하여, 실생활에 나타나야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지식을 가지고 입술로 가볍게 기도해봐야,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립서비스로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본질에 관해서는 막0536의 노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각 경우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을 분류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보시고 11가지**

1. 열병의 치유: 언급 없음(믿음을 보시고) / 열병을 꾸짖으심으로

마0814.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니라.

마0815. 이에 그분께서 그녀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그녀를 떠나니라. 그리고 그녀가 일어나 그들을 섬기니라(미완료형).

막0130. 그러나 시몬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에 걸려 누워있었느니라(미완료형), 이내 그들이 그녀에 관해 그분께 말하니라.

막0131. 이에 그분께서 가시어, 그녀 손을 잡고, 그녀를 위로 일으키시니라, 이에 곧바로 열병이 그녀를 떠나니라, 그리고 그녀가 그들을 섬기니라.

Ω눅0438. 그리고 그분께서 회당에서 일어나,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시니라. 그리고 시몬의 부인의 어머니가 대단한 열병에 잡혀 있었느니라(쉬네코:함께 잡다,막다,체포하다,강요하다,곤경에 빠뜨리다,괴롭히다,미리 점유하다,억제하다,붙잡다,지키다,억압하다,누워 앓다,멈추다,모이다), 이에 그들이 그녀를 위해 그분께 간구하니라.

눅0439. 이에 그분께서 그녀 위에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니라, 이에 그것이 그녀를 떠나니라, 그리고 곧바로 그녀가 일어나, 그들을 섬기니라.

2. 질병과 악령들에 점유된 자들의 치유: 언급 없음(믿음을 보시고) / 말씀으로,안수함으로

마0816. 저녁이 오니, 그들이 악령들에 점유된 많은 이들을 그분께 데려오니라, 이에 그분께서 영(靈)들을 그분의 말씀으로 내치시고, 또 병 걸린 모든 이들을 낫게 하시니라.

Ω막0132. 해가 진 저녁에 질병에 걸린 모든 이들과 악령들에게 점유된 자들을 그들이 그분께 데려오니라(미완료 시제).

막0133. 그리고 온 성(城)이 문에 함께 모여드니라.

막0134.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가지 질병들에 걸린 많은 이들을 고치시고, 많은 악령들을 몰아내시니라. 그리고 악령들이 말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라. 이는 그들이 그분을 앎이라.

눅0440. 한데, 해가 지고 있을 때에, 여러가지 질병들에 걸린 누군가를 가지고 있던 그들 모두가 그들을 그분께 데려오니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 낱낱의 자 위에 그분의 손을 얹어, 그들을 고치시니라.

3. 중풍병자 치유: 믿음을 보시고 / 말씀으로

마0902. 그런데 보라, 그들이 중풍에 걸린 한 남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그분께 데려오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께서 중풍에 걸린 자에게 이르시니라, 아들아, 기운을 내라. 네 죄들이 네게서 사면될지어다.

마0905. " 네 죄들이 네게서 사면될지어다"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 일어나 걸으라" 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것이 더 쉬우냐?

마0906.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사면하는 권세(위임받은 권능, 엑수시아: 능력, 특권, 힘, 재능, 지배, 영향력)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 (다음에, 그분께서 중풍 걸린 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

막0203. 그리고 넷에 의해 운반되는, 중풍병에 걸린 자를 데리고, 그들이 그분께 오니라.

막0205.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분께서 중풍에 걸린 환자에게 이르시니라, 아들아, 네 죄들이 네게서 사면될지어다.

막0209. 중풍에 걸린 자에게 "네 죄들이 네게서 사면될지어다"고 말하는 것과 또는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것이 더 쉬우냐?

막0210.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죄들을 사면하기 위해 땅 위에서 권능(위임받은 권능/ 엑수시아: 능력, 특권, 힘, 재능, 지배, 자유,행정장관,군주,통제의 상징,영향력,권위,사법권,권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니라, (그분께서 중풍에 걸린 자에게 이르시되,)

막0211.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네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네 길을 가라.

눅0518. 그리고 보라, 중풍에 잡혀있던 어떤 남자를 사람들이 침상 안에 누인 채로 데려오니라, 그리고 그를 안으로 데려가, 그를 그분 앞에 놓는 방법을 그들이 모색하니라.

눅0520. 이에 그분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니라,

남자여, 네 죄들이 네게서 사면되었느니라.

눅0523. 어느것이 더 쉬우냐, "네 죄들이 네게서 사면될지니라"고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것이냐?

눅0524.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죄들을 사면하기 위해 땅에서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니라. (그분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니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들라, 그리고 네 집으로 가라.

4. 악령에 점유된 자의 치유: 언급 없음(믿음을 보시고) / 말씀으로

마0932. 그들이 나가니, 보라, 저들이 악령에게 점유된 말 못하는 이를 그분께 데려오니라.

마0933. 그리고 그 악령이 쫓겨나니 말 못하던 자가 말하니라. 이에 무리들이 경탄하니라, 말하되,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결코 이렇게 보여지지 않았느니라.

5. 악령에 점유된 자의 치유: 언급 없음(믿음을 보시고)

마1222. 그때에 악령에게 점유되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어떤 이가 그분께 데려와지니, 눈 멀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고 볼 정도로 그분께서 그를 고치시니라.

6. 각종 질병 치유: 언급 없음(믿음을 보시고) / 옷을 만짐으로

마1435.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에피기노스코:어떤 표식을 알다,인식하다,전적으로 알게 되다,인정하다,알다,지각하다), 그들이 주변의 모든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어, 병들었던 모든 이들을 그분께 데려 오니라.

마1436. 그리고 그들이 그분 겉옷의 가장자리를 만지기만 하도록 그분께 간구하니라. 이에 만졌던 모든 이들이 완전히 온전하게 되니라.

7. 질병 치유: 언급 없음(믿음을 보시고) / 만짐으로

막0655. 그리고 주변 온 지역을 통해 달려가, 그분께서 계신다고 그들이 들은 곳으로, 병에 걸린 자들을 침상 채로 갖고 다니기(페리페로:지니고 다니다,갖고 다니다,앞뒤로 운반하다,운반하다) 시작하니라.

막0656. 그리고 그분께서 마을들이나 성(城)들이나 시골로 들어가시는 어느곳에서든지, 그들이 병에 걸린 자들을 길거리들에 내놓고, 그것이 그분 겉옷의 가장자리일지라도 그들이 만지기를 그분께 간구하니라. 그리고 그분을 만진 모든 이들이 온전하게 되니라.

8. 귀먹은 벙어리의 치유: 언급 없음(믿음을 보시고) / 만지심과 말씀으로 /

막0732. 그리고 귀 먹고,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어떤 이를 그들이 그분께 데려와, 그 사람 위에 그분의 손을 얹어주시기를 그들이 그분께 간구하느니라.

막0733. 이에 그분께서 무리로부터 그를 따로 데려가시어, 그분의 손가락을 그의 귀들 속으로 넣으시고, 또 그분께서 침을 뱉어, 그의 혀를 만지시니라.

막0734. 그리고 하늘로 위로 바라보시고, 그분께서 탄식하시니라(한숨지으시니라),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엪파다: 기원은 아람어, 열리다)", 다시 말해, "열려지라".

막0735. 이에 곧바로 그의 귀들이 열려지고, 그의 혀의 힘줄이 풀려지니라, 그리고 그가 똑똑히 말하니라.

9. 소경의 치유: 언급 없음(믿음을 보시고) / 안수하심으로

막0822. 그리고 그분께서 벳새다에 오시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눈먼 자를 그분께 데려오느니라, 그리고 그를 만져주시기를 그분께 간구하니라.

막0823. 이에 그분께서 눈먼 자의 손을 잡고, 그를 읍(邑) 밖으로 이끄시니라, 그리고 그의 눈들에게 침을 뱉으신 후에, 그분의 손들을 그에게 얹으시니라, 그가 무엇인가를 보는지 그분께서 그에게 물으시니라.

막0824. 이에 그가 위를 바라보고, 여쭈니라, 나무들과 같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을 내가 보나이다.

막0825. 그후에, 그분께서 다시 그분의 손들을 그의 눈들 위에 얹으시고, 그를 위로 바라보게 하시니라, 이에 그가 회복되어, 낱낱의 사람을 선명하게 보니라.

10. 치유: 언급 없음(믿음을 보시고) / 옷을 만짐으로

눅0619. 그리고 온 무리가 그분을 만지려고 모색하니라, 이는 그분에게서 효능(성령의 권능, 뒤나미스: 힘,능력,권능,권력,세력)이 나가, 그들 모두를 고쳤음이라.

11. 귀족의 아들의 치유: 언급 없음(믿음을 보시고) / 말씀으로

요0446.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나로 다시 들어오시니, 이곳은 그분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라, 그리고 어떤 귀족(바실리코스:왕의,주권자에게 속한,뛰어난,귀족)이 있었으니,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에 걸려 있었느니라,

요0447.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그가 듣고, 그가 그분께 가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내려 가시어서, 그의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그분께 간구하니라, 이는 그가 죽음의 지점에 있었음이라.

요0450.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길을 가라, 네 아들이 사느니라, 이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말하신 말씀을 믿으니라. 그리고 자기 길을 가니라.

**◆믿음대로 10가지**

1. 백부장 종의 중풍 치유: 네가 믿었던대로 / 말씀만으로

Ω마0805. 그리고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분께 간청하며, 그분께 오니라.

마0806. 그리고 여쭈되, 주여, 내 종이 몹시 고통 받으며, 중풍으로 병들어 집에 누워있나이다.

Ω마0807. 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그를 낫게 할 것이니라.

Ω마0808. 백부장이 대답하여 여쭈니라, 주여, 당신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실 만큼 나는 합당치 않나이다. 대신에 말씀만 말하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나이다.

Ω마0813.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니라, 네 길을 가라. 그리고 네가 믿었던 대로, 그것이 네게 그렇게 행해질지어다(기노마이:원인이 되다,되다,일어나다,스스로 행하다,되어지다,끌어내다,끝맺게 되다,떨어지다, 끝내다, 따르다, 발견되다, 이루어지다,자라다,가지다,되도록 정해지다,지나다,수행되다,보이다,보여지다, 취해지다, 변화하다). 이에 그의 종이 같은 시각에 치유되니라.

눅0702. 그리고 어떤 백부장에게 소중한 그의 종이 병에 걸려, 바야흐로 죽으려 하니라.

눅0703. 이에 그가 예수에 관해 듣고, 그분께서 오셔서, 그의 종을 고쳐주시기를 그분께 간청하면서, 그가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그분께 보내니라.

Ω눅0706.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그 집으로부터 멀리 있지 않을 때에, 백부장이 그분께 친구들을 보내니라, 그분께 여쭈되, 주여, 당신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는 당신께서 내 집 지붕 밑으로 들어오셔야 할 만큼 나는 합당치 않음이라.

눅0707. 그러므로 내 자신이 당신께 가기에 합당하다고 내가 또한 생각하지 않았나이다. 대신에 한 말씀으로 이르소서, 그러면 내 종이 고침을 받나이다.

눅0710. 그리고 보내진 자들이 집으로 돌아가 병에 걸렸던 종이 온전하게 된 것을 발견하니라.

2. 회당 방백의 딸을 살리심: 믿기만 하라 / 말씀으로

Ω마0918. 그분께서 이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동안에, 보라, 어떤 방백[아르콘:첫째,주(통치자),방백(方伯),왕(王)]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고, 여쭈되, 내 딸이 바로 지금 죽었나이다. 그러나 오셔서 당신의 손을 그녀 위에 얹으소서, 그러면 그녀가 사나이다.

Ω마0925. 그러나 사람들이 밖으로 내보내지니, 그분께서 들어가시니라,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으니 그 소녀가 일어나니라.

막0522. 그리고 보라, 이름이 '야이로'인 회당 관리(아르키쉰아고고스:회당장,회당의 관리인,통치자)들 중의 하나가 오느니라, 그리고 그가 그분을 보고, 그가 그분 발치에 엎드리니라.

Ω막0535. 아직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동안에, 회당의 관리의 집으로부터 이같이 말한 몇몇이 오니라 곧,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당신께서 이 선생님을 더 이상 번거롭게 하시나이까?

Ω막0536. 예수께서 말해지던 그 말을 들었던 즉시, 그분께서 회당의 관리에게 이르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막0537.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제외하고, 아무도 그분을 따라오는 것을 그분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라.

막0540. 이에 그들이 냉소하며 그분을 비웃으니라(미완료 시제).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 모두를 내보내신 후에, 그분께서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또 그분과 함께 있던 자들을 데리고 소녀가 누워있었던 곳으로 들어가시느니라.

막0541. 그리고 그분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이르시니라, " 탈리타 쿠미[아람어 ; 탈리다(소녀야), 쿠미(일어나라)]", 번역하면 이것은 "소녀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이니라.

눅0841. 그리고 보라, 야이로라 이름하는 어떤 이가 오니라, 그는 회당의 방백 [아르콘:첫째,주(통치자),방백(方伯),왕(王)]이였느니라. 그리고 그가 예수의 발치에 엎드려, 그분께서 그의 집으로 가시기를 그분께 간구하니라,

눅0842. 이는 그가 약 열 두살된 외동딸 하나를 두었는데, 그녀가 죽으며 누워있었음이라. 그분께서 가실 때에, 백성이 그분께 밀어닥치니라.

Ω눅0849.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시는 동안에, 회당 방백의 집으로부터 어떤 이가 오느니라, 그에게 말하되,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번거롭게 하지 마소서.

Ω눅0850.그러나 예수께서 이를 들으시고,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니라,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오직 믿으라, 그러면 그녀가 온전하게 되느니라.

Ω눅0851. 그리고 그분께서 집으로 들어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그분께서 아무도 안으로 들어가게 허락치 않으시니라.

Ω눅0854. 이에 그분께서 그들 모두를 내보내시니라,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부르시니라, 이르시되, 소녀야 일어나라.

3. 혈루병 여인의 치유: 네 믿음이 치유하였느니라 / 옷을 만짐으로

마0921. 이는 그녀가 속으로 말했음이니 곧, 만약 내가 그분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 내가 온전해지느니라.

마0922. 예수께서 돌아서시니라. 그분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니라, 딸아, 기운을 내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이에 그 부인이 그 시각으로부터 온전하게 되니라.

막0525. 그리고 열두 해 동안 출혈을 가지고 있었으며,

막0534. 이에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니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만들었느니라, 편안히 가라, 네 역병에서 온전하게 되라.

눅0843. 그리고 열두 해 동안 출혈병을 가지고 있었으며, 의사들에게 그녀의 모든 생계의 수단(비오스: 생명,존재하는 현 상태,생계의 수단,선,생활)을 썼으며, 또한 누구에게서도 고침을 받을 수 없었던 어떤 부인이,

눅0844. 그분 뒤로 와서, 그분 겉옷의 가장자리를 만지니라, 이에 즉시로 그녀의 출혈이 멎으니라.

눅0847. 이에 그 부인이 숨겨지지 않는 것을 그녀가 보고, 그녀가 떨면서 나오니라,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면서, 무슨 까닭으로 그녀가 그분을 만졌었는지, 또 그녀가 즉시로 고침을 받은 사정을 모든 백성 앞에서 그분께 분명하게 밝히니라.

눅0848. 이에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니라, 딸아, 기운을 내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만들었느니라. 평온히 가라.

4. 두 소경의 치유: 믿음을 따라서 / 만짐으로

마0927. 그리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시니, 두 소경이 부르짖으며 그분을 따라오니라, 여쭈되, 당신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엘레에오:측은히,불쌍히,긍휼히 여기다,동정하다),

마0928. 그리고 그분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소경들이 그분께 오니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너희가 믿느냐? 그들이 그분께 여쭈니라, 예, 주여,

마0929. 다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눈들을 만지시니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을 따라 그것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5. 이방여인의 딸의 축사: 네 믿음대로 / 말씀으로

마1522. 그리고, 보라, 가나안 부인이 그 해안에서 나와, 그분께 부르짖으니라, 여쭈되, 오 주여, 당신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엘레에오:측은히,불쌍히,긍휼히 여기다,동정하다), 내 딸이 악령에게 몹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마1528. 그때에 예수께서 응답하여 그녀에게 이르시니라, 오 부인이여, 네 믿음이 대단하니라. 네가 원하는 바로 그대로 네게 있을지어다, 이에 바로 그 시각으로부터 그녀의 딸이 상처 없게 되니라.

막0725. 이는 자기 젊은 딸이 더러운 영을 가진 어떤 부인이 그분에 관해 듣고, 와서, 그분의 발치에 엎드렸음이라.

막0726. 그 부인은 그리스인이며, 족속으로는 시로페니키아인이니라, 그분께서 자기 딸에게서 악령을 쫓아내 주시기를 그녀가 그분께 간구하니라(미완료 시제).

막0728. 이에 그녀가 대답하여 그분께 여쭈니라, 그렇나이다, 주여, 그럼에도 식탁 아래의 개들이 자녀들의 빵부스러기들에서 먹나이다.

막0729. 이에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니라, 그 말 때문이니, 네 길을 가라, 악령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6. 소경의 치유: 네 믿음대로 / 만지심으로

마2030. 그런데 보라, 길가에 앉아 있던 두 소경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을 듣고, 그들이 부르짖으니라, 말하되, 오 주여, 당신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엘레에오:측은히,불쌍히,긍휼히 여기다,동정하다),

마2032. 이에 예수께서 멈춰 서시니라,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이르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기를 너희가 원하느냐?

마2034.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함께 걷기'를 베푸시고, 그들의 눈들을 만지시니라, 이에 곧바로 그들 눈들이 시력을 받으니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막1046.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에 오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 제자들과 백성의 대단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눈먼 바-디매오 곧, 디매오의 아들이 구걸하며 대로 곁에 앉아 있었느니라.

막1051.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니라,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네가 원하느냐? 눈먼 자가 그분께 여쭈니라, 주여, 내가 내 시력을 받으려 하나이다.

막1052. 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니라, 네 길을 가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만들었느니라. 이에 곧바로 그가 자기의 시력을 받으니라, 그리고 노상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눅1835. 그리고 이것이 일어나니라 곧, 그분께서 여리고에 가까이에 이르셨을 때에,

어떤 눈먼 이가 구걸하며, 길 가에 앉아 있었느니라.

눅1840. 이에 예수께서 멈추시고, 그가 자기에게 데려와지도록 명하시니라, 그리고 그가 가까이 오니, 그분께서 그에게 물으시니라,

눅1841.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기를 네가 원하느냐? 이에 그가 여쭈니라,

주여, 내가 내 시력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눅1842. 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니라, 네 시력을 받으라, 네 믿음이 너를 구했느니라.

7. 무화과 나무의 기적: 말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 말씀으로

마2119. 그리고 그분께서 길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분께서 거기로 가셔서, 오직 잎들 말고는 달려있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니라, 이에 그것에게 이르시니라, 지금부터 영원히 네게서 아무런 열매가 자라지 말지니라. 그러자 이내 그 무화과 나무가 시드니라.

마2120. 이에 제자들이 이를 보고, 그들이 경탄하니라, 말하되, 얼마나 빨리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져버리는가!

마2121.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니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약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의심하지 않으면(중간태), 너희가 무화과 나무에게 행해지는 것을 할 뿐만 아니라, 만약 너희가 이 산에게 "너는 옮겨져, 너는 바다속으로 던져지라"고 말하면 그것도 행해지느니라.

마2122. 그리고 모든 것들을 곧, 너희가 믿으면서, 기도 중에 청하는 무엇이든지를 너희가 받느니라.

막1113. 멀리 저쪽에 잎들이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분께서 나무에 달린 어떤 것을 발견할지 어떨지, 그분께서 가시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거기에 가서, 그분께서 잎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시니라, 이는 무화과들의 때가 아직 아니었음이라.

막1114. 이에 예수께서 응답하여 그것에게 이르시니라, 지금부터 영원히 아무도 네게서 열매를 먹지 않느니라, 이에 그분 제자들이 그것을 들으니라.

막1120. 그리고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면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그들이 알아차리니라.

막1121. 이에 기억이 난 베드로가 그분께 여쭈되, 선생님, 보소서, 당신께서 저주(악담)하신 무화과 나무가 시들었나이다.

막1122.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

막1123. 이는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를 이름이니 곧, 이 산에게 "너는 옮겨져, 너는 바다 속으로 던져지라"고 말하고, 또 그의 마음 안에서 의심하지 않고, 대신에 그가 말하는 것들이 일어난다고 믿는 누구든지, 그는 그가 말하는 무엇이든 갖느니라.

막11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다고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그것들을 갖느니라.

눅1705. 이에 사도들이 주께 여쭈니라, 우리의 믿음을 불리소서(프로스티데미:더 놓다,가하다.더하다,옆자리에 놓다,부가하다,반복하다,덧붙이다,더주다,증가하다,더 나아가다,더 이야기하다)

눅1706. 이에 주께서 이르시니라, 만약 너희가 겨자씨 한 낱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이를 이 뽕나무에게 말할 것이니라 곧, "너는 뿌리 채 뽑혀져, 너는 바다에서 심겨지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청종해야 할 것이니라.

8. 이적들: 믿는 자들 / 뒤따름으로 말씀을 확증하기 위하여

막1617. 그리고 이들 표적들이 믿는 그들을 따르느니라, 내 이름의 권위로 그들이 악령들을 쫓아내며, 그들이 새로운 발성들로 말하느니라,

막1618. 그들이 큰 뱀들을 집어 올리느니라, 그리고 만약 그들이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시면, 그것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병든 자들 위에 손을 얹으며, 그들이 회복되느니라.

막1620. 그리고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뒤따르는(에파콜루데오:동반하다,뒤따르다) 표적들로 말씀을 뒷받침(확증) 하시는 가운데에,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낱낱의 곳에서 전파(선포)하니라, 아멘.

9. 죄를 사하심: 네 믿음이 / 말씀으로

눅0736. 그리고 바리새인들 중의 하나가 그분께서 그와 함께 식사하기를 그분께 원하니라. 이에 그분께서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가, 식사 자리에 앉으시니라.

눅0737. 그리고 보라, 죄인이던 그 성(城)의 어떤 부인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자리에 앉으신 것을 알고, 그녀가 향유(香油)가 담긴 설화석고(雪花石膏) 상자를 가져오니라.

눅0740. 이에 예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니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얼마간을 가지고 있느니라, 이에 그가 여쭈되, 선생님, 계속 말하소서.

눅0744. 그리고 그분께서 그 부인에게로 돌아서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니라, 네가 이 부인을 보느냐? 내가 네 집으로 들어왔느니라. 너는 내 발들을 위해 아무런 물을 내게 주지 않았느니라, 그러나 그녀는 내 발들을 눈물들로 씻고, 그녀 머리의 머리카락으로 발들을 닦았느니라.

눅0747.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많은 그녀의 죄들이 사면되었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했음이라, 그러나 그에게 적게 사면되는 자, 바로 그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눅0748. 그리고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니라, 네 죄들이 사면되었느니라.

눅0750. 그리고 그분께서 그 부인에게 이르시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했느니라, 평안히 가라.

10. 나병 치유: 네 믿음이 / 말씀으로

눅1712. 그리고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셨을 때에, 멀리 떨어져 서있던 나병환자 열명이 거기에서 그분과 마주치니라.

눅1713.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여 여쭈니라, 예수여,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엘레에오:측은히,불쌍히,긍휼히 여기다,동정하다).

눅1714. 이에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니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자신들을 보여주라", 그리고 이것이 일어나니라 곧, 그들이 가는데, 그들이 씻겨 깨끗이 되니라.

눅1718. 이 낯선 이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돌아온 아무도 발견되지 않느니라.

눅1719. 그리고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니라, 일어나서, 네 길을 가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만들었느니라.

**◆불신앙 때문에 5가지**

1. 폭풍우를 잠재움: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마0825. 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을 깨우니라, 여쭈되, 주여,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가 소멸되나이다.

마0826.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오 너희 믿음이 거의 없는 자들아. 다음에 그분께서 일어나시어, 바람들과 바다를 꾸짖으시니라, 그러자 대단한 평온함이 있으니라.

막0439. 이에 그분께서 일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바다에게 이르시니라, "조용히 하라, 잔잔해지라", 이에 바람이 그치니라, 그리고 대단한 고요함이 있었느니라.

막0440.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니라,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은 어쩐 일이냐?

눅0822. 한데, 하루는 이것이 일어나니라 곧, 그분께서 그분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니라, "우리가 호수 건너편으로 넘어가자", 이에 그들이 배로 나아가니라.

눅0823. 그러나 그들이 항해하는 동안에 그분께서 잠에 떨어지시니라, 그리고 호수 위에 바람의 폭풍이 내려와, 그들이 물로 채워져, 위험에 처하니라.

눅0824. 이에 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을 깨우니라, 여쭈되,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소멸되나이다" 그때에 그분께서 일어나시어, 바람과 노도를 꾸짖으시니라, 이에 그것들이 그치고, 고요가 있으니라,

눅0825.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니라,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놀라 두려워하던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되, "이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신가! 이는 그분께서 심지어 바람들과 바다에게 명하시니, 그것들이 그분께 청종함이라"

2. 고향에서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심: 불신앙 때문에

마1357. 그들이 그분 안에서 걸려 넘어지니라(스칸달리조:걸려 넘어지다,함정에 들다,죄에 빠지다,배반당하다,불쾌하게 되다,죄를 범하게 되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니라, 자기 고향에서와 자기 자신의 집에서 말고는 대언자(代言者)가 존중 받지 못하지 않느니라.

마1358. 그리고 그들의 믿지 않음(아피스티아: 믿음 없음,불신,불충실,불순종,불신앙) 때문에, 그분께서 거기에서 많은 세력(힘)있는 일들을 행하지 않으시니라.

막0601. 그리고 그분께서 그곳으로부터 떠나, 그분 고향으로 들어오시니라, 그리고 그분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막0605. 그리고 그분께서 약간의 아픈 사람들 위에 그분의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치신 것을 제외하고는, 그분께서 거기서는 세력(힘)있는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으시니라.

막0606. 그리고 그들의 불신 때문에 그분께서 이상하게 여기시니라, 그리고 가르치시면서,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니라.

3. 수면 위에서 걷는 기적: 믿음이 없는 자여

Ω마1428. 이에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여쭈니라, 주여, 만일 당신이시면, 물 위로 당신께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Ω마1429.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니라, "오라", 이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 그가 예수께 가려고 물 위를 걸으니라.

마1430. 그러나 그가 바람이 몹시 사나운 것을 보고, 그가 두려워하니라. 그리고 가라앉기 시작하니 그가 소리치니라, 말하되, 주여, 나를 구하소서.

Ω마1431. 이에 곧바로 예수께서 자기의 손을 뻗으셔서, 그를 잡으시니라,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니라, 오 너 믿음이 거의 없는 자여, 어찌하여 네가 의심하였느냐?

4. 어떤 이의 아들의 축사: 축사 불능 이유: 믿음 부족 때문에

마1715. 주여, 내 아들을 긍휼히 여기소서(엘레에오:측은히,불쌍히,긍휼히 여기다,동정하다), 이는 그가 미쳐서, 상처로 고통을 받음이니이다. 이는 그가 자주 불속으로 또 자주 물속으로 떨어짐이니이다.

마1718. 그리고 예수께서 악령(惡靈)을 꾸짖으시니, 저가 그에게서 떠나니라. 이에 그 아이가 바로 그 시로부터 고침을 받으니라.

마1719. 그후 제자들이 예수께 따로 와서 여쭈니라,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쫓아낼 수 없었나이까?

마1720.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니라, 너희의 불신 때문이니라. 이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름이니, 만약 너희가 겨자씨 한 낟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이 산에게 " 여기서 저쪽으로 옮기라" 고 말하면, 그러면 그것이 옮겨지느니라.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아무것도 없느니라.

마1721. 그러나 이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느니라.

막0917. 이에 무리 중의 하나가 대답하여 여쭈니라, 선생님, 내가 당신께 내 아들을 데려왔나이다, 그가 말 못하는 영(靈)을 가지고 있나이다.

막0918. 그리고 그 영(靈)이 그를 붙잡는 어디서든, 그 영(靈)이 그를 쥐어뜯나이다, 그러면 그가 거품을 내고, 그의 이를 갈며 또 파리(수척)해지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이 그를 쫓아내주기를 내가 그들에게 말했으나, 그들이 할 수 없었나이다.

막0922. 그리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자주 그것이 그를 불속으로, 물속으로 던졌나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께서 어떤 것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에게 '함께 걷기'를 베푸셔서, 우리를 도우소서,

막0923.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니라, 만약 네가 믿을 수 있으면, 믿는 그에게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니라.

막0924. 이에 곧바로 아이의 아버지가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눈물들로써 여쭈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불신을 당신께서 도우소서,

막0925. 백성이 함께 달려오는 것을 예수께서 보시고, 그분께서 더러운 영(靈)을 꾸짖으시니라, 그에게 이르시되, 너 말 못하고 귀먹은 영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더 이상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막0927. 그러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위로 일으키시니라, 이에 그가 깨어나니라.

막0928. 그리고 그분께서 집으로 들어가시자, 그분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물으니라,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쫓아낼 수 없었나이까?

막0929.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니라,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것에 의해서 도 나올 수 없느니라.

눅0938. 그리고 보라, 무리 중의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니라, 여쭈되, 선생님,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내 아들을 바라보소서, 이는 그가 나의 유일한 아이임이라.

눅0939. 그리고 보소서, 한 영[프뉴마:프네오(숨쉬다)에서 유래,공기의 흐름,숨,바람,미풍,영(靈),생동하는 원리,정신적 기질,천사,마귀,하나님,성령]이 그를 붙잡으면, 그가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나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쥐어 뜯어, 그가 다시 거품을 내나이다. 그리고 그에게 타박상을 입히면서, 그로부터 거의 떠나지 않나이다.

눅0942. 그리고 그가 아직 오고 있는데, 악령이 그를 내던지고, 그를 쥐어 뜯으니라, 이에 예수께서 더러운 영을 꾸짖으셔서, 아이를 고치시고, 그를 다시 그 아버지에게 넘겨 주시니라.

5. 이적: 불신앙 때문에

눅0120. 그리고 보라, 이 일들이 실행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며, 말할 수 없느니라, 이는 내 말들의 제때에 성취되는 내 말들을 네가 믿지 않음이라.

**◆믿음으로 청종해서 3가지**

1. 마른 손 치유: 믿음으로 청종함으로 / 말씀으로

Ω마1209. 그리고 그분께서 거기서 떠나, 그분께서 그들의 회당 안으로 들어가시니라.

마1210. 그런데, 보라, 움츠러들은 그의 손을 가진 한 남자가 있으니라. 이에 그들이 그분께 물으니라, 말하되, "안식일들에 병을 고치는 것이 적법하니이까?", 이는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려(카테고레오:원고가 되다,잘못을 비난하다,고소하다,반대하다) 함이라.

마1213. 그 다음에 그분께서 그 남자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앞으로 뻗으라", 이에 그가 그것을 앞으로 뻗으니, 그것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Ω막0301.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회당 안으로 들어가시니라, 거기에 움츠러들은 손을 가진 어떤 남자가 있었느니라.

막0303. 그리고 그분께서 움츠러들은 손을 가진 남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앞으로 나오라.

막0304.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들에 선(유익)을 행하는 것이 적법하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적법하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냐?", 그러나 그들이 잠잠이 있으니라.

막0305. 그리고 그들 마음들의 굳어 있음에 대해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분께서 노여움으로 그들을 둘러 바라보시니라, 그분께서 그 남자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앞으로 펴라. 이에 그가 그것을 펴니라, 이에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Ω눅0606. 그리고 또 다른 안식일에 이것이 또한 일어나니라 곧, 그분께서 회당에 들어가시어, 가르치시니라. 그리고 오른손이 시들은(크세로스: 건조한,주름진,마른,시든) 한 남자가 있었느니라

눅0608.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들을 아시고, 시들은 손을 가진 자에게 이르시니라,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와 서라", 이에 그가 일어나, 나와 서니라.

눅0609. 다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가지를 물을 것이니라, 안식일들에 선을 행하는 것이 적법하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적법하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적법하냐, 아니면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적법하냐?

눅0610. 그리고 그들 모두를 둘러 바라보시고, 그분께서 그 남자에게 이르시니라, 네 손을 앞으로 펴라. 이에 그가 그렇게 하니라, 이에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2. 포도주 기적: 언급없음(믿음으로 청종함으로) / 말씀하심으로

요0201.그리고 제 삼일에, 갈릴리의 가나에서, 혼인식이 있었느니라,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느니라.

요0203. 그리고 그들이 포도주가 모자라니, 예수의 어머니가 그분께 말하되, 그들이 포도주가 없느니라.

요0205. 그분 어머니가 종(디아코노스: 시종인, 시중드는 사람, 선생, 목사, 집사)들에게 말하되, 그분이 너희에게 이르는 무엇이든, 그것을 행하라.

요020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들을 물로 채우라, 이에 그들이 그것들을 언저리까지 채우니라.

요0208.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퍼내서(안틀레오:짐짝을 쌓다,물을 퍼내다,물을 긷다) 연회장(아르키트리클리노스:연회장)에게 가져가라, 이에 그들이 그것을 가져가니라.

3. 병자 치유: 언급없음(믿음으로 청종함으로) / 말씀하심으로

요0502. 한데, 예루살렘에 양(羊)시장 곁에, 다섯의 회랑(回廊; 여러 개의 방과 방 또는 건물과 건물을 연결해 주는 지붕이 있는 긴 통로)들이 있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불리우는 작은 못이 있었느니라.

요0503. 그곳들 안에 눈이 멀고, 절름발이고 움츠러들은 불구의 사람들의 대단한 무리가 물이 요동치기를 기다리며 누워있었느니라.

요0505. 그리고 거기에 어떤 남자가 있었으니, 그가 삼십 팔년 동안 병약함을 가지고 있었느니라.

요0506. 예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지금 그런 병자로 오랫동안 지내온 것을 아시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요0508.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요0509. 그러자 곧바로 그 남자가 온전하게 되어, 그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라. 그런데 그 날은 안식일이었느니라,

**◆긍휼히 여기심으로 6가지**

1. 나병환자의 치유: 언급 없음(긍휼히 여기시고) / 손을 내밀어 만지심으로

마0802. 그런데 보라, 한 나병환자가 와서, 그분께 경배 드리니라, 말하되, 주여, 만약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께서 나를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마0803. 이에 예수께서 자기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이 될지어다. 이에 곧바로 그의 나병이 씻겨 깨끗이 되니라.

막0140. 그리고 한 나병환자가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구하며 그분께 무릎을 꿇으니라, 그리고 그분께 여쭈되, 만약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은 나를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나이다.

막0141. '함께 걷기'로 동요된 예수께서 자기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니라,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하게 될지어다.

눅0512. 그리고 이것이 일어나니라 곧, 예수께서 어떤 성(城)에 계실 때에, 나병으로 가득한 한 남자를 보시니라. 예수를 본 그가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그분께 간청하니라, 말하되, 주여, 만일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은 나를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나이다.

눅0513. 이에 그분께서 그분의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라, 너는 깨끗하게 될지어다. 이에 즉시 나병이 그로부터 떠나니라.

2. 질병 치유: 동정심으로 동요되시어

마1414. 그리고 예수께서 앞으로 나가시어, 대단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향한 '함께 걷기'로 동요되시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니라.

3. 나인성에서 죽은 자를 살리심: 긍휼히 여기시고 / 말씀으로

눅0712. 그때에 그분께서 그 성문에 가까이 이르시니, 보라, 죽은 자가 곧, 그의 어머니의 유일한 아들이 밖으로 운반되니라, 그리고 그녀는 과부더라, 그리고 그 성의 많은 백성이 그녀와 함께 있었느니라.

눅0713. 이에 주(퀴리오스)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분께서 그녀에게 '함께 걷기'를 가지시니라, 이에 그녀에게 이르시니라, 울지 말라.

눅0714. 그리고 그분께서 가시어, 관가(棺架)를 만지시니라, 이에 그를 옮기던 자들이 가만히 서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이르시니라, 젊은이여,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눅0715. 이에 죽었던 그가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시니라.

4. 질병 치유: 언급 없음(긍휼히 여기시고) / 안수하심으로

눅1310. 그리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회당들 중의 하나에서 가르치고 계셨느니라.

눅1311. 그리고, 보라, 십 팔년간 병약함의 영(靈)을 가지고 있고, 함께 구부러져서, 결코 자신을 세울 수 없던 한 부인이 거기에 있었느니라.

눅1312. 이에 예수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분께서 그녀를 자기에게 부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니라. 부인이여, 네가 네 병약함으로부터 풀어졌느니라.

눅1313. 그리고 그분께서 그녀 위에 그분의 손을 얹으시니라, 이에 즉시로 그녀가 곧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니라.

5. 수종 치유: 언급 없음(긍휼히 여기시고)

눅1401. 그리고 이것이 일어나니라 곧, 안식일에 빵을 드시러 그분께서 머리 바리새인들 중의 하나의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들이 그분을 지켜보니라.

눅1402. 그리고 보라, 그분 앞에 수종(水腫, 물 종기)이 걸린(휘드로피코스: 수종이 걸리다) 어떤 사람이 있었느니라.

눅1403. 이에 예수께서 응답하여 법률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적법하냐?

눅1404. 이에 그들이 잠잠이 있으니라, 이에 그분께서 그를 데려다가, 그를 고치시고, 그를 가게 하니라.

6. 잘린 귀 치유: 언급없음(긍휼히 여기시고) / 만지심으로

눅2250. 그리고 그들 중의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을 강타하여,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니라.

눅2251. 이에 예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니라, 너희는 여기까지 내버려두라(에아오:버려두다,허락하다,혼자 내버려두다,맡기다,놓아두다,혼자 두다,허용하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의 귀를 만져, 그를 고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가지**

1. 소경 치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 침으로

요0901. 그리고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에, 그의 태어날 때로부터 눈먼 한 남자를 그분께서 보시니라.

요0902. 이에 그분 제자들이 그분께 물으니라, 여쭈되, 선생님, 그가 눈이 멀어 태어난 것은 누가 죄를 지었나이까, 이 남자이니이까 아니면, 그의 부모이니이까?

요0903. 예수께서 대답하시니라, 이 사람이 죄를 짓지도, 그의 부모가 죄를 짓지도 않았고, 대신에, 하나님의 일들이 그 사람 안에서 분명하게 나타내지게[파네로오: (문자적이거나 상징적으로)명백하게 나타나다, 나타나다, 명백히 선언하다] 하려 하심이라.

요0906. 그분께서 그같이 말씀하신 후에, 그분께서 땅에 침을 뱉어, 침으로 점토(粘土)를 만드시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 점토로 눈먼 자의 눈들에 바르시니라.

요0907.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니라, "가서, 실로암(이를 번역하면, '보내졌다') 못에서 씻으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을 가서, 씻어, 봄에로 오니라.

2. 나사로를 살리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 말씀으로

요1123.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 오라버니가 다시 일어나느니라.

요1125.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니라, 나는 그 부활이며 또 그 생명이니라, 내 안에서 믿는 자, 비록 그가 죽을지라도, 그럼에도 그는 사느니라.

요1126. 그리고 내 안에서 살며, 믿는 누구든지 결코 죽지 않느니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요1139. 예수께서 이르시니라, "너희는 돌을 치우라", 죽었던 자의 자매인 마르다가 그분께 여쭈되, "주여, 이 시간쯤에는 그가 악취가 나나이다, 이는 그가 나흘 동안 죽어 있었기 때문이니이다"

요1140.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만약 네가 믿으려 하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요1141. 그때에, 죽은 자들이 안치되어 있는 곳으로부터 그들이 돌을 치우니라, 이에 예수께서 자기의 눈을 들어올려, 말하니라, 아버지여, 당신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내가 당신께 감사 드리나이다.

요1142. 그리고 당신께서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것(현재형)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말했으니, 그러면 당신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을 것이니이다.

요1143. 그리고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후에, 그분께서 큰 목소리로 외치시니라, 나사로야, 앞으로 나오라.

**◆기타 1가지**

1. 사람들의 질병 치유 및 축사: 언급 없음

막0134.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가지 질병들에 걸린 많은 이들을 고치시고, 많은 악령들을 몰아내시니라. 그리고 악령들이 말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라. 이는 그들이 그분을 앎이라.